

30년 정성들여 ‘와~우’ 명품딸기 탄생 “꿀벌”이용한 무농약 딸기 재배

농민들도 씻지 않고 바로 먹는 무농약 농법
상큼 달콤 맛 호평...10%이상 비싸도 ‘블터’



▶ 봄을 맞아 출하한 와우딸기가 서울 경매시장에서 명품으로 대우를 받으며 높은 가격에 팔리자 작목회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전남 담양 ‘와우딸기’ 작목회
“30년 동안 정성들여 실험하고 도전해서 빛은 명품이에요. ‘대한민국 일등딸기’로 자부합니다.”

전남 담양군 와우딸기 작목회는 들판에 봄 기운이 돌면서 날마다 11t 화물차 한대 분량의 소출을 서울 가락동 시장에 낸다. 와우딸기는 전국에서 실려온 딸기 가운데 가장 먼저 경매에 나오는 예우를 받는다.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다. 가격도 2kg에 2만3천원으로 다른 딸기에 견주어 10% 이상 높게 받는다.

이 작목회는 1971년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구점림(65·봉산농협 조합장), 김현수(68)씨 등 농민 10여명이 ‘새로운 농사를 지어보자’며 꾸린 신농회로 출발했다. 처음에는 정부의 <국민 원예독본>에 따라 들판에 대나무로 비가림하우스를 짓고 오이·토마토를 심었다. 어렵게 수확을 해도 팔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차츰 이력이 붙자 76년 가격이 높고 소출이 많고 일 품은 적은 딸기로 눈을 돌렸다. 딸기 원예의 소득이 높아지자 여러 농가가 동참해 작목회를 꾸렸다.

올해는 마을의 120가구 가운데 77가구가 작목회원이다. 40대~70대로 연령층이 다양하지만 50대 이하가 절반을 넘는다. 지난해 9월 영산강변 17ha에 300평 짜리 하우스 280동을 지었다. 올 봄에 딸기 561t을 수확해 27억원을 벌어들일 전망이다.

이 마을 박성수(53)씨는 “20~30대는 대개 취업과 결혼을 위해 고향을 떠난다”며 “가구당 한해 수익이 5000만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나면서 돌아오는 이들이 늘어 다른 마을과 달리 40~50대층이 두텁다”고 전했다.

와우딸기가 이런 명성을 얻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83년 저온에서 꽃핀 딸기의 수정이 어렵자 원예시험장 곳곳을 돌며 ‘꿀벌 수정’이라는 해결책을 찾았다. 하우스 안에 꿀벌을 들이니 자연스럽게 농약을 쓸 수 없게 됐다. 작목회는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초창기 교훈을 잇

지 않았다. 8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품을 특·상·중·하로 나누고 생산자의 이름과 전화를 기록해 신뢰를 높였다. 시장의 요구에 맞춰 포장도 나무상자에서 스티로폼으로 재빨리 바꿨다. 87년에는 돌풍에 하우스 30여동이 무너졌지만 협동작업으로 위기를 넘겼다.

작목회가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품질관리다. 이를 위해 딸기 연작을 피하고 환경 농법을 택하는 등 재배기술을 과감하게 혁신했다.

강평원(47)씨는 “파이프로 지은 하우스를 뜯어 옮기는데 이만저만 힘이 드는 게 아니어서 반대도 많았다”며 “이제는 다음해 경작할 토지에 미생물과 영양분이 풍부해지도록 미리 쌀겨를 뿌리고 시비를 할 정도로 달라졌다”고 말했다.

노성귀(53)씨는 “여태껏 묘목 이식부터 소출 수확까지 무농약으로 재배해 우리들도 입으로 후속 분 뒤 그대로 딸기를 먹는다”며 “요즘은 향산화물질이 있어 곰팡이를 죽인다는 썩과 미나리 진액을 만들어 병해충을 방제한다”고 자랑했다.

이런 정성으로 와우딸기는 당도가 14%로 높고, 씹히는 맛이 상큼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명성이 높아지자 담양군도 2010년까지 1억여원을 지원해 마을 안에 신품종 명품화 단지를 조성했다.

이에 따라 작목회는 내년 마을 소득을 30억원으로 높여잡기로 했다. 식물품종 보호제 시행에 앞서 국내종을 50%까지 늘리고 정보시대 판매전략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 2007. 2. 25 / 한겨레신문 -

꿀벌 적재차량 고속도로 운행시 주의사항

한국도로공사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00년 3월, 고속도로 운행 차량에서 적재화물을 흘려 뒤따르는 다른 차량에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건수가 빈발하자 고속도로 운행 화물차에 따른 강경 단속에 나섰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봉군이동차량을 지목하여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꿀벌 특성상 차량에 포장을 씌울 수 없는 우리 이동 양봉농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었다.

그 당시 본 협회는 양봉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계기관과의 협의 끝에, 봉군이동차량은 일반 적재차량처럼 포장을 씌우지 않아도 되지만 고무바를 철저히 결박하여 벌통 뚜껑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속도로 운행 차량 단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봉군차량에 포장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회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봉군 적재시 고무바를 철저히 결박하여 각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각 시·도지회장에게 연락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행정지시 공문 사본을 지참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